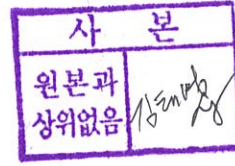


# 회의록



회의명: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장소: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

작성자: 김태영

일시: 2018년 4월 9일 (월요일), 12:20 ~ 14:20

## 1. 참석자: 재적평의원 11명중 6명 참석

반창일 의장, 유인하 부의장, 김동성 평의원, 영한웅 평의원, 변재홍 평의원, 김동석 평의원 (이상 6명)

\* 불참: 김성지 평의원, 최영주 평의원, 하강현 평의원, 고병철 평의원, 박민규 평의원 (이상 5명)

\* 배석: 김광재 기획처장, 전상민 교무처장, 김군역 행정처장, 재무회계팀 이수진 팀장, 노재일 대리, 유혜중 대리, 시설운영팀 김영수 팀장, 권현우 대리, 가속기연구소 이대영 구매회계팀장, 경영관리팀 손임락 팀장(간사), 김태영, 백창원, 김선일

## 2. 안건

### ○ 자문 안건

- 제1호: 2017학년도 회계 결산안

### ○ 보고안건

- 제1호: 미투(Me Too) 관련 대학의 대응 경과 및 대응 방안

- 제2호: 숙소지역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

## 3. 주요 내용

○ 대학평의원회 안건 심의에 앞서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학생대표 평의원(학부, 대학원) 및 직원대표 평의원에 대한 총장의 위촉장 수여가 있었음.

○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간사의 성원 보고가 있었음.

### 제1호 자문 안건: 2017학년도 회계 결산안 (대학/가속기연구소)

○ '2017학년도 회계 결산안'과 관련하여 교비회계 결산안은 이수진 재무회계팀장이, 가속기 결산안은 이대영 가속기연구소 구매회계팀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 [주요 의견]

#### <대학교비>

○ '2017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자금계산서 수입 내역 중 국고보조금 50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영한웅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국고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BOIC 보조금의 경우 예산 대비 2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나노융합기술원 첨단기술사업화센터의 경우 계획된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 22억원이 감소하였다는 재무회계팀 유혜중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 지출 내역 중 관리운영비 감소 사유에 대한 영한웅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나노융합기술원에서 메이플세미컨덕터 부도로 인한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긴급재정으로 운영한 요인이 있으며,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중 직원교육과정 운영, 가치창출대학



사업 등 당초 계획 대비 집행 금액의 변경에 기인한다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 지출 내역 중 연구·학생경비 감소 사유에 대한 염한웅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연구비 27억원의 감소는 시험분석료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예상 대비 감소하였고 학생경비의 경우 산단 장학금 집행이 늘고 교비 장학금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재무회계팀 유혜종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교비에서 지출해야 할 장학금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교비에서 장학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교비에서 장학금 투자를 덜한다는 의미가 아닌지에 대한 염한웅 평의원의 추가 질의가 있었으며, 교수의 연구과제가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교비로 편성한 예산의 경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과제가 돌아와 산학협력단 회계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기 편성했던 예산은 학과의 다른 경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면 된다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 제넥신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대학과 제넥신의 합작회사(SL-PoGen)를 만들어서 제넥신에서 기부 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일부를 합작회사 설립에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지에 대한 반창일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수진 재무회계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 SL-PoGen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반창일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당초 GMP 시설을 유지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경되어 현재 SL-PoGen에서는 장기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수진 재무회계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염한웅 평의원의 추가 의견이 있었으며, MOU 체결 등 방향이 정리되면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이수진 재무회계팀장의 부연설명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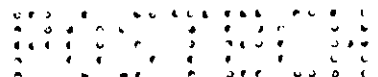
- 교원 인건비 중 30억원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염한웅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간접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며 철강대학원과 엔지니어링 대학원 교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전출을 받아 대학에서 집행하였으나 작년 회계감사에서 산학협력단 전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변경, 집행된 것이라는 재무회계팀 이수진 팀장,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 차년도 회계 결산안 자문 시에는 전년도 회의록을 함께 배포하여 전년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유인하 평의원의 요청이 있었으며, 의장이 동의하고 다음 예산 및 회계 결산안 자문 안건을 다루는 평의원회에 회의록을 첨부할 것을 요청함.

- 지난 번 예산안 자문 시 대학의 비정규직과 용역 직원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학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유인하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는 김군역 행정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관련하여 조금 더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유인하 평의원의 요청이 있었으며 검토해 보겠다는 김군역 행정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지난 번 대학평의원회에서 가속기연구소 거버넌스 변경에 따라 대학과 가속기연구소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유인하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현재 구성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관련하여 제대로 된 협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top-down 방식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는 유인하 평의원의 요청이 있었음.

- 나노융합기술원 입주기업인 메이플세미컨덕터의 부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나노융합기술원에 다른 입주기업도 있는지 그리고 해당 입주기업들의 운영에 대하여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반창일 의장의 질의가 있었음.

이와 관련, 메이플세미컨덕터 이외에 다른 입주기업들이 있다는 이수진 재무회계팀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진단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손임락 경영관리팀장의 추가 답변이 있었음.

- 복지회, 상조회 예·결산 관련 내용을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였으면 좋겠다는 반창일 의장의 의견이 있었음.

#### <포항가속기연구소>

- 정부에서 투자하여 건설했던 장비를 제외하고 재단이나 대학에서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반창일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실제 해당되는 고정자산은 없다는 이대영 가속기연구소 구매회계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하여 Photon Science Center를 만들 예정이며 11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반창일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대학의 소유이며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라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제1호 보고 안건: 미투(Me Too) 관련 대학의 대응 경과 및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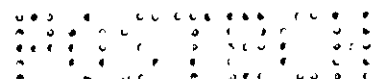
- 미투(Me Too) 관련 대학의 대응 경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전상민 교무처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 [주요 의견]

-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명확히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익명의 제보자에게 대학에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된 것인지에 대한 김동성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자유게시판 제보 글 근처에 신고 절차, 제보의 중요성,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신변 비밀 보장 등을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 글의 조회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볼 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관련하여 현재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POVIS 게시판을 활용하여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창일 의장의 부연설명이 있었음.

- 교내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는 글이 신문에 노출되는 것은 우려되며, 대학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하며 대학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김동성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 우리 대학의 문화가 미투(Me Too)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건강한 문화인지에 대한 정경이 필요함. 미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만큼 현재 우리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결 프로토콜'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프로토콜이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만큼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자의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유인하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 학생 사회에서는 일련의 사태를 성범죄임과 동시에 권력구조에 의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상담실과 더불어 상담센터가 인권·성평등센터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실질적 활동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김동석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예를 들어, 교내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센터를 알리고, 교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고취 교육 진행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으로 제보·대응 프로세스를 널리 알리는 매뉴얼 작성 요구 등이 있었음.

관련하여 해당 의견을 잘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교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제시된 글의 언론 유포와 관련하여 대학의 대응에 대한 반창일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교내 게시판의 경우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하여 교내 구성원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추측되나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익명 게시글을 숨길 이유는 없으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규칙의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는 반창일 의장의 추가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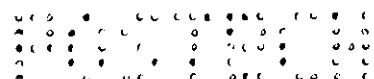
- 미투 등 상담센터 운영에 관하여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유인하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상담센터에도 전달하고 대학에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우리 대학 상담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교수가 맡고 있는 체제라 학생 등 구성원이 자유롭게 상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학의 상담센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 더 원활한 상담과 제보가 가능하도록 대학 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염한웅 평의원, 반창일 의장의 의견이 있었음.
-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박민규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제2호 보고 안건: 숙소지역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

- 숙소지역 내진성능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김군역 행정처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 [주요 의견]

-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작년에 8,400여 만원을 투입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였고, 해당 진단 결과 문제가 있어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염한웅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내진성능평가를 담당했던 '에스엔에스 구조'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자체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에 있어서 외주를 주고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로 재검증을 진행 중이라는 김군역 행정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재검증 의뢰를 행정처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우려가 있어 보이며 당초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신뢰할 수 없는 업체라면 대학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검증 결과 당초 진단과 반대의 내용이라면 어떤 업체의 진단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는 염한웅 평의원과 반창일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며 한 번 더 검증하자는 취지였으며 6월 말이 되면 전체 건물에 대한 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김군역 행정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재검증을 통한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진이 발생하여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된다는 염한웅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 교수아파트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진성능평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교원의 주거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므로 대학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더불어 구성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는 반창일 의장의 추가 의견이 있었음.

기타

- 연말에 추진하고자 했던 대학평의원회 교원대표와 법인 개방이사(감사)와의 모임을 이번 여름방학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준비해 주기 바란다는 반창일 의장의 요청이 있었음.
- 차기 대학평의원회 개최 시 지진 관련 사항 및 우은재 세내기학부 경과 보고를 포함해 주기 바란다는 반창일 의장의 추가 요청이 있었음.

담당자 김태영 주임교수

참석자

담당자 교수 김동석      교수      팀장 변재홍  
 김동석 평의원 김동석

